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十六)

휴란게氏 (二), 룯소 (一)

鼎言生

휴란게 (二)

『氏의 教育主義』人間은 確乎한 信仰을 有한 者로써 비로소 完全한 人이 됨을 得할지니, 若此가 無한 時는 種々の 不善에 陷하기 易한지라. 小兒는 더욱 信仰心이 淺薄하여 不德의 核子를 帶한 者인즉, 能히 各人의 性質을 察하여 此를 根本的으로 改良함이 가장 必要하니라. 信仰은 此에 對한 最好의 良藥이니 貴賓賤富를 不問하고 此에 適한 者이라. 又 少年은 鬱散愉快를 要함이 多한즉 一은 身體의 運動으로써 此를 滿足케 하며 愉快케 함과 共히 有用한 事. 特히 機械的의 職業을 與하며 或은 自然의 人工의 新奇한 者를 探究케 함으로써 其望을 充得할 者이라. 氏는 又 如何한 教育을 施하든지 恒常 實用에 適함을 目的으로 하고, 生徒의 本分 及 後來의 職業에 注意하여 理科, 歷史, 地理 等으로 第一必須의 學科로 하며 次에 讀書, 習字, 算術 等を 學하니라.

『氏의 小兒 教育法』小兒教育의 卓見과 小兒를 愛憐하며 其信仰心의 眞實함은 左에 記함으로써 明히 하는 것이라.

第一, 神意에 適하고 且 必要한 風紀를 維持코저 한즉 教師된 者 先히 神明에 祈하고 自身의 智識을 得할지며, 忍耐 寬容 及 愛情으로써 生徒의 惡을 改良케 할지니라.

第二, 教師는 恒常 克己心을 持하고 嚴重히 生徒의 風紀를 監督하며 溫和 篤勵로써 해야, 決코 苛酷한 處置로써 罰함은 大히 不可하니라.

第三, 理解치 못함으로써 小兒를 誹謗하며 又是 粗暴의 稱號로써 小兒를 侮辱함이 不可하니라.

第四, 先히 生徒의 天性을 洞察하여 柔順溫和한 者는 粗暴倔強한 者와 同一히 視함이 不可하니라.

第五, 苛酷을 避코저 해야 寬大에 流함이 極한즉 遂히 放漫에 陷하기 易할지라. 故로 賞罰을 謹慎함이 可하니라.

第六, 十五歲 以上の 生徒를 敎訓함에는 此를 別室에 誘하여 種々の 訓戒로 自然 彼の 良心을 悔悟케 할지니라.

룻소씨 (一)

『氏의 略歷』 氏는 一七一二年에 瑞西國 時計商人家에서 生하여 母를 失하고 父의 養育을 受하였도다. 幼時로부터 讀書를 好하는 中 殊히 小說稗史 等を 愛讀하니라. 後年에 懺悔錄을 著할새 當時의 事를 錄하여 『余는 事를 事로 아니하고, 唯히 書籍 畚을 耽讀함을 歲月과 共히 하며, 耳目에 觸하는 事는 此를 讀破치 못할가 恐怖하였도다. 故로 一卷을 讀함에는 其始로 其終을 卽席에서 了코저하여 晝夜를 連함에 多하였다.』 하니라. 後에 故로 因하여 氏의 父는 『겐후』 故鄉을 出하게 됴므로써, 氏는 其叔父에게 托하여 寺院에 入하여 敎育을 受한 後 二年에 辯護士 書記가 되었다가, 次에 銅版師의 弟子가 되었스나 品行을 修치 못함으로 其譴責을 恐하여 『겐후』를 出奔하여 四方에 彷徨客이 되며 飢渴의 窮困者가 되었도다. 僅히 某僧侶의 救助를 受하여 『와렌쓰』라 稱하는 一夫人의 家에 入하여 餓死를 免하게 되었도다. 此夫人家에 寄與함이 數年間に 또한 不品行이 甚하여 此家를 辟去하고 浮萍客이 되었스나, 都處 失敗로 飢渴을 免키 難하게 된지라, 不得已 此家에 再歸하여 其愛護를 乞하였도다. 從此로 氏는 平素와 不品行을 悔하고 專히 學問에 心を 傾하여 天資聰慧함으로 進歩가 非常히 速하여 『리온』 家庭敎師로 聘하였스며, 後에 伊太利 駐在 佛國 公使館 書記生에 登用하였스나, 不品行으로 또한 免官이 되고, 巴리에 歸하여 오히려 放浪함을 悔치 못하고 一女子와 通하여 五子를 生함에 至하니라. 其後 一七五〇년에 故鄉 『겐후』에 歸하여 大히 前非를 悔하고 良民될 修養을 得코저 하여, 蟄伏함이 六個年을 過하여 更히 巴리에 赴하여 著述에 從事를 始함으로써, 其名을 天下後世에 輝하는 基를 此에서 發하니라. 然하여 後의 有名한 『예밀』 及 『민약론』은 當時의 傑作으로써 大히 世의 注目を 引하였스나, 政府의 諱忌에 觸하여 佛國退去令을 受하니라. 會에 普魯四王 『후리도리히』 第二世의 召를 受하여 此에 赴하는 途中에 蘇蘭의 一哲學者와 會見하고, 心機一轉하여 普土의 召를 辭하고 蘇蘭을 赴한 後, 再히 佛國에 歸함을 許하여 一七七〇년에 巴리에 歸하여 居한지 八年後에 死하니라. 氏는 感情에 銳함을 語하여 「余는 비록 一物一事를 知함은 無하나 一物一事라도 感치 아니함은 無하다.」 하니라. 氏는 系統的 敎育을 受함은 無하나 思想이 豊富하고 識見이 偉大함으로써, 名論卓說을 吐함이 不少하였도다. 其中 가장 有名한 것은 第一 『지지온』大學의 懸賞文으로 「學術技藝의 進歩는 風俗을 泯亂함인가, 又是 淳良함인가?」 이오. 第二 同大學

懸賞文으로 『人間社會의 不平均된 原因』, 第三은 一七六〇年에 著한 『民約論』 등으로써 民權發達과 社會改良의 一大原因을 作하얏스며, 第四는 彼 『예밀』로써 一種의 教育說을 作하얏드라.